

## 한-케냐 인프라 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2월 3-4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

###### ○ 주요 경제 지표

출처:trading economics

	해당년/월/주/일	전년/월/주/일	참고시점
환율(USD)	129	129	2025.12월
인플레이션(%)	4.5	4.6	2025.11월
CPI(points)	147	147	2025.11월
정부부채비율(% of GDP)	65.5	72	2024.12월

###### ○ 재무부, 케냐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민영화 수익 활용 목적의 국가 인프라 펀드 제안<sup>1)</sup>

- 국가 재무부(National Treasury)는 현재 해당 기금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자산 민영화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인프라 부문에 투입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 기금 (National Infrastructure Fund, NIF)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 해당 계획은 사파리콤(Safaricom)에 대한 정부 지분 매각 및 케냐 파이프라인 회사(Kenya Pipeline Company)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으며, 전체 수익의 약 10%는 국부펀드(sovereign-wealth) 성격의 부문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예정임.
- 이 기금은 대규모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초기 재정 투입을 통해 위험을 완화함으로써 민간 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부채나 조세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mulls-infrastructure-fund-without-supporting-law-5291510>

- 비판론자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별도의 전담 법적 체계 없이 대규모 국가 인프라 펀드를 출범시킬 경우, 수십억 실링 규모의 공공 재원이 관리 부실에 노출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재무부, 2026년 재정법안 조세 개편 관련 공청회 절차 개시<sup>2)</sup>**

- 케냐 국가 재무부(National Treasury)는 2026년 재정법안(Finance Bill 2026)과 관련하여 공공 참여 절차를 개시하고,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세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음.
- 재무부는 제출안이 개정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조세 법령을 명시하고, 문제점을 기술하며,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경제전환 의제(Bottom-Up Economic Transformation Agenda)에 부합하는 근거 기반의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본 절차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2024년 재정법안으로 인해 촉발된 대중적 사회 불안과 같은 과거의 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공부채 증가와 지속가능한 세수 확충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026/2027 회계연도 조세 정책 수립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임.

- **실링화 안정으로 외환거래 수익 급감… 케냐 은행권, 새로운 수익 구조에 적응<sup>3)</sup>**

- 케냐 은행들은 2025년 9월까지 9개월간 외환 거래를 통해 총 KES 386억7,000만의 수익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KES 559억4,000만 대비 30.9% 감소한 수치로, 이러한 감소는 주로 자국 통화의 안정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케냐 실링화는 미국 달러당 약 129.15~129.80 범위에서 제한적인 변동성을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 폭이 크게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통화 거래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감소하며 은행들이 외환거래 수익에 의존해 온 이익률이 압박을 받고 있음.

2) [https://businesstoday.co.ke/treasury-invites-participation-finance-bill/#google\\_vignette](https://businesstoday.co.ke/treasury-invites-participation-finance-bill/#google_vignette)

3)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markets/currencies/how-stable-shilling-has-cooled-banks-forex-trading-fortunes-5283230>

- KCB 그룹,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케냐(Standard Chartered Bank Kenya), 스텐빅은행 케냐(Stanbic Bank Kenya) 등 주요 은행들은 모두 외환거래 수익에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40~60% 감소를 기록하였음.
  - 외환거래 수익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들은 전통적인 이자수익, 대출,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은행권의 사업 모델이 변동성이 큰 통화 거래 중심에서 보다 안정적인 수익원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함.
- 케냐 중앙은행, 실링화 및 물가 안정 반영해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 조정<sup>4)</sup>
- 케냐 중앙은행(Central Bank of Kenya, CBK)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6년 6월까지 약 3.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이는 이전 4.3% 전망 대비 하락한 수치로, 지속적인 물가 및 환율 안정에 기인함.
  - 전체 인플레이션은 2025년 11월 기준 4.5%로 완화되었으며, 안정세는 안정적인 환율, 최근 수확으로 인한 식량 공급 개선, 안정적 국제 유가 등으로 운송비 및 주유소 가격 상승이 억제된 점이 포함됨.
  - 낮은 인플레이션 전망은 CBK가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민간 부문 신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회의를 9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
  - 민간 부문 대출은 차입 비용 하락과 거시경제 여건 안정 속에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신용 증가율은 19개월 만의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② PPP 관련 동향

- 재무부, 민관협력(PPP) 체계 하 나이로비 고속도로 계약 해지 시

4)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cbk-cuts-inflation-outlook-further-on-stable-shilling-consumer-prices-5294250>

## KES 1,037억 6,000만 위험 공개<sup>5)</sup>

- 국가 재무부(National Treasury)는 케냐 정부가 중국도로교량공사(CRBC)의 자회사인 모자 익스프레스웨이(Moja Expressway)와 체결한 나이로비 고속도로(Nairobi Expressway) 민관협력(PPP) 실시 협약을 조기 해지할 경우, KES 1,037억 6,000만의 해지(위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해당 고속도로 해지 비용은 재무부의 2024/25 회계연도 공공부채 보고서에 조건부 채무로 기록된 11개 PPP 인프라 사업 전반에서 잠재적 해지 비용 총액 KES 2,030억 중 절반을 초과하는 수준에 해당함.
- 본 고속도로는 재원 조달 및 운영 위험을民間 부문으로 이전하기 위해 PPP 방식으로 건설되었으나, 계약 조건상 국가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건설비, 금융비용 및 향후 예상 수익에 대한 보전 등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투자자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재무부 관계자들은 계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이 계약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확실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PPP 관련 조건부 채무는 하나 이상의 PPP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가 예산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음.

- 케냐 정부와 중국계 운영사, 마우 서밋 고속도로 PPP 사업 초과 통행료 수익 공유 합의<sup>6)</sup>
  - 케냐의 나이로비-나쿠루-마우 서밋(Nairobi-Nakuru-Mau Summit)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은, 사전에 합의된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한 초과 통행료를 케냐 정부와 공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통행료 수익 구조의 중요한 조정을 의미함.
  - 또 다른 주요 통행료 프로젝트인 나이로비 익스프레스웨이(Nairobi Expressway)는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익이 운영비와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유료도로 사업 전반의 수익성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5)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discloses-sh103bn-expressway-termination-fee-5293472#google\\_vignette](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treasury-discloses-sh103bn-expressway-termination-fee-5293472#google_vignette)  
6)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economy/chinese-firms-to-share-excess-mau-road-toll-fees-with-state-5298714>

- 이번 수익 공유 합의는 투자자 수익과 공공 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주요 인프라에 대한 높은 통행료에 대한 정치적·공공적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앞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우 서밋 유료도로 계약을 분리한 바 있으며, 이는 복잡한 재원 조달 구조와 국가 재정 요건 하에서 PPP 도로 계약의 지속적 협상 및 구조화를 반영함.
- 케냐, PPP 방식으로 자금 조달된 최초 전력 송전선 추진… 전력망 안정성 강화 및 접근성 확대<sup>7)</sup>
- 케냐는 과부하 상태에 놓인 전력망으로 인한 정전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초의 민관협력(PPP) 방식 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음.
  - 국영기관 케냐 전력 송전공사(KETRACO)는 Africa50 및 인도 PowerGrid Corporation과 함께, 총 KES 404억(3억 1,100만 달러) 규모의 PPP 계약을 체결하고, 30년간의 실시협약 기간 동안 두 개의 전략적 송전선로를 금융조달,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로 하였음.
  - 해당 송전선은 400 kV Lessos-Loosuk 노선과 220 kV Kibos-Kakamega-Musaga 노선으로, 전력망 안정성 강화, 지역 및 기타 재생에너지 송전 지원, 서부 케냐 지역으로 신뢰성 있는 전력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함.
  - PPP 모델은 초기 투자 위험을 민간 부문에 이전하는 구조로, 인프라 재원 조달 여건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 공공 재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

- 사파리콤 지분 매각으로 KES 2,445억 조달… 대형 인프라 사업 재원 확보 전략 강화<sup>8)</sup>
- 케냐 정부는 사파리콤(Safaricom)에 대한 보유 지분을 35%에서 20%

7) <https://www.businessdailyafrica.com/bd/corporate/industry/kenya-pushes-for-delivery-of-first-ppp-funded-power-lines-5298694>

8) <https://www.theeastfrican.co.ke/tea/business-tech/safaricom-becomes-kenya-s-anchor-for-infrastructure-financing-5288252>

로 축소하고, 15% 지분을 보다폰 그룹(Vodacom Group)에 매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계획임.

- 매각 수익은 에너지, 도로, 수자원, 공항 등 주요 인프라 및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배정될 예정이며, 이는 차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 자본을 동원하려는 정부의 새로운 재정 전략의 일환임.
- 본 조치는 공공부채를 확대하는 대신, 사파리콤과 같은 우량 국영 자산을 활용하여 국가 인프라 펀드(National Infrastructure Fund)와 같은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 재원 조달 접근법을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함.
- 재무부는 사파리콤 지분의 일부를 현금화함으로써 재정 여력을 안정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가의 참여 확대가 나이로비 증권거래소(Nairobi Securities Exchange)의 유동성 확대 및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투르카나 유전 상업화 사업의 재개 및 가속화<sup>9)</sup>

- 케냐 에너지부(Energy Ministry)는 내년부터 투르카나 지역에서 유전 상업 생산을 개시할 수 있도록, 걸프 에너지(Gulf Energy)가 수정 제출한 유전 개발 계획(Field Development Plan)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텔로우 오일(Tullow Oil) 주도로 10년 이상 지연되어 왔으나, 현재는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세제 감면, 비용 회수 체계 강화를 통해 투자를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음.
- 걸프 에너지는 일일 60,000~100,000배럴의 원유 생산 및 2026년 12월 첫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장기적으로는 라무항(Lamu Port) 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895km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도 포함함.
- 관련 인허가가 완료될 경우, 본 사업은 KES 7,89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케냐의 에너지 부문 및 전반적인 경제 전망을

---

9) <https://businesstoday.co.ke/turkana-oil-project-set-to-begin-next-year/>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케냐·탄자니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통해 전력·교통·인프라 재원 확보 모색<sup>10)</sup>

- 최근 모로코 라바트(Rabat)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투자 포럼(African Investment Forum)에서 케냐 정부와 탄자니아 정부는 에너지, 전력망 확장, 교통, 철도 및 도로 개량을 포함한 일련의 인프라 사업을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재원 조달 대상 사업으로 제시하였음.
- 케냐는 추가 150만 명의 전력 접근 확대를 위한 전력망 확장 사업에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150MW 발전 설비 구축을 위한 8천만 달러의 재원을 요청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교통 부문 자금 조달 요청에는 주요 도로 및 철도 회랑 개량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동아프리카 전반의 지역 연결성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의지를 반영함.
- 교통 부문 사업만으로도 제시된 가치는 약 17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다수의 ‘사업성 있는(bankable)’ 프로젝트에 대해 AfDB의 재원 지원 관심은 높은 상황이나, 이러한 관심을 실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원 약속 단계에서 실제 자금 집행 및 사업 이행 단계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됨.

○ 케냐, 나이로비 CBD 혼잡 해소 위해 중앙철도역 대규모 확장 추진<sup>11)</sup>

- 정부는 나이로비 철도 도시(Nairobi Railway City) 프로젝트 1단계 일환으로 나이로비 중앙철도역(Nairobi Central Railway Station) 확장 계획을 착수하여, 도심 혼잡을 완화하고 도시 내 연결성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음.
- 확장 사업을 통해 플랫폼 수를 2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새로운 출입 건물, 플랫폼 연결 교량, 캐노피, 동·서·남·북측 접근 개선 시설을 도입할 예정임.

10) <https://www.theeastfrican.co.ke/tea/business-tech/kenya-tanzania-seek-loans-for-infrastructure-projects-from-afdb-5288406>

11)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12/government-to-expand-nairobi-central-railway-station-capacity/>

- 본 프로젝트는 역을 철도, BRT(Bus Rapid Transit), 보행 이동을 통합하는 다중 모드 교통 허브로 전환시키고, 혼잡한 마타투(matatu) 및 버스 구역을 공원과 광장으로 재조성할 계획임.
-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인 환경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지만, 환경관리청(NEMA) 승인을 받은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토지 가치 상승, 나이로비 CBD 내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 도시 혼잡 완화 위해 키암부-나이로비 도로 2차선 확장에 KES 220억 투자<sup>12)</sup>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키암부 주 및 나이로비 수도권 내 교통 혼잡 완화와 이동성 개선을 목표으로, Muthaiga-Kikuyu-Kiambu-Ndumberi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KES 220억 규모의 정부 재원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 본 프로젝트는 타당성 조사 및 계획 단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착공 시 이동 시간 단축과 회랑 내 경제 활동 활성화가 기대됨.
- 루토 대통령은 또한 티카(Thika) 도로를 따라 뮤지엄 힐(Museum Hill)까지의 신규 고속도로 계획을 공개하고, 키암부 내 중단된 도로 사업이 새로운 시공사를 통해 재개될 것임을 확인하였음.
- 국가 차원에서는 2032년까지 신규 도로 28,000km 건설을 목표로 하는 장기 인프라 계획과 함께, 시장, 보건, 청년 창업, 인프라 재원 조달 등 광범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루토 대통령, KES 5조 인프라 추진 계획 일환으로 2026년 1월 JKIA 현대화 착수<sup>13)</sup>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조모 케냐타 국제공항(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 JKIA) 현대화 및 신공항 건설이 2026년 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KES 5조 규모의 국가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임.

12) <https://businesstoday.co.ke/ruto-announces-ksh22-billion-dualling-of-muthaiga-kikuyu-kiambu-ndumberi-road/>

13) <https://www.capitalfm.co.ke/business/2025/12/modernization-of-jkia-to-begin-in-january-2026-president-ruto/>

- 대통령은 공항 현대화를 표준궤도 철도(Standard Gauge Railway) 연장 등 광범위한 인프라 사업과 연계하며, 산업화 촉진과 부채 의존도 감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음.
- 루토 대통령은 또한 발전 용량을 약 3,300 MW에서 2032년까지 최소 10,000 MW로 확대하는 에너지 확장 계획도 제시하였음.
- 그는 신뢰성 있고 저렴한 에너지와 현대적 교통 인프라가 생산성, 혁신 및 케냐의 글로벌 경쟁력 산업 경제 전환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 ④ 정치 동향

- 키암부 주지사 Wamatangi 하 KES 200억 개발계획, 소송으로 지연 프로젝트 드러나며 논란<sup>14)</sup>
  - 키마니 와마탄기(Kimani Wamatangi) 주지사 지도 하, 키암부 카운티 정부는 다양한 개발 사업에 KES 20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다수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되고 있음.
  - 주민들과 비판론자들은 사업 관리 부실, 투명성 부족, 약속된 프로젝트 미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이행되지 않은 개발 공약에 대한 공공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사업 지연은 도로부터 각종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회·인프라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주민 신뢰 저하 및 카운티 차원의 거버넌스 및 책임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
  - 이번 논란은 대규모 예산 배정이 효과적인 집행과 감독 없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 지연, 법적 분쟁,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 루토 대통령, 내각 장관들을 선거 전면에 배치: 2027년 재선 캠페인 주도 지시<sup>15)</sup>
  -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2027년

14) <https://nation.africa/kenya/counties/kiambu/sh20bn-investments-a-lawsuit-and-row-over-stalled-projects--5290468>

15) <https://nation.africa/kenya/news/politics/ruto-orders-ministers-to-lead-his-2027-campaigns-5292534>

재선 캠페인을 선도하고 주도할 것을 지시하였음.

- 이번 조치는 정치 전문가들이 정부가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전환했다고 평가하는 사안으로, 국가 공무원과 정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지지 기반을 동원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 비판론자들은 해당 지시가 국가 직무와 정당 정치 활동 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공무와 선거 활동의 분리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 이번 사안은 향후 고도의 정치적 국면이 전개될 것을 시사하며, 장관 구조가 순수한 행정·정책 집행이 아닌 선거 동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민주적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탄자니아 선거 이후 혼란, 美 지원 432억 달러 프로젝트 위기<sup>16)</sup>

- 탄자니아 정부는 선거 이후 불안정과 미국과의 양자 관계 재검토로 인해 투자자 불확실성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LNG, 니켈, 흑연 프로젝트를 포함한 약 432억 달러(USD 43.2 billion) 규모의 미국 연계 전략적 투자를 구제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0월 선거 이후 인권 침해, 언론 자유 억압,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 문제로 인해 탄자니아와의 파트너십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탄자니아 대통령은 특히 LNG 개발 420억 달러, 니켈 사업 9억4,200만 달러, 흑연 사업 3억 달러 규모 등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미국 측에 정부의 프로젝트 완료 의지를 전달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번 정치 위기와 평판 훼손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연, 사업 추진 지연, 탄자니아의 경제 회복 및 지역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과거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및 구조개혁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함.

#### ○ 비판론자, 루토 대통령 KES 5조 국가 인프라 기금이 2027년 선거용

16)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news/east-africa/tanzania-s-political-turmoil-threatens-43bn-us-backed-projects-5291916>

## 책략이라고 지적<sup>17)</sup>

- 키하루(Kiharu) 지역구 국회의원 응딘디 뇌로(Ndindi Nyoro) 는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이 제안한 KES 5조 규모 국가 인프라 펀드(NIF) 을 2027년 선거 전망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책략’으로 일축하며, 실질적 경제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하였음.
- 정부의 잊은 비판자인 뇌로 의원은 행정부가 새로운 대규모 재원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차입한 KES 4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그는 또한 NIF와 같은 재원 조달 수단이, 특히 공식 예산 외(off the official budget) 차입이 많다는 점에서 국가를 추가 부채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 뇌로 의원은 발표 시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 단위 규모 계획의 장대한 약속이 즉각적 공공서비스 문제와 근본적 책임성을 흐릴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17) [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6607/ndindi-nyoro-rutos-sh5tm-infrastructure-fund-is-2027-ploy#google\\_vignette](https://www.standardmedia.co.ke/national/article/2001536607/ndindi-nyoro-rutos-sh5tm-infrastructure-fund-is-2027-ploy#google_vignette)

## □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 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

#### ① Mtwapa-Malindi-Mombasa-Lungalunga Road<sup>18)</sup>

##### < 사업 개요 >

- (발주처) 케냐 도로·교통부(Ministry of Roads & Transport) 산하 케냐 국도청(KeNHA), 국경 간 연안 회랑 구간에 대해서는 동아프리카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추진
- (도급사) 연안 회랑 전체 구간에 공개된 단일 시공사는 없음. 사업은 구간별(lot별)로 서로 다른 시공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비) Mombasa–Mtwapa 2차로 확장 구간(연장 13.5km)의 사업비는 KES 75억으로 제시됨. 한편, Mtwapa–Malindi–Lungalunga(케냐–탄자니아 연계)를 포함한 연안 회랑 전체 구간의 총사업비는 단일 금액으로 공식 집계·공개된 바 없으며, 과거 지역 회랑 개발 계획 자료에서는 수억 달러 규모로 언급된 바 있음.
- (펀딩) Mombasa–Mtwapa 구간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연합(EU), 케냐 정부의 재원을 결합한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음.  
Mtwapa–Malindi–Lungalunga로 이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연안·국경 간 회랑 사업은 지역 고속도로 프로그램인 Bagamoyo–Tanga–Horohoro / Lunga Lunga–Malindi 도로 사업 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fDB 및 기타 지역·다자개발기구 자금과 각국의 공동 재원이 혼합된 구조의 재원 조달이 예상됨.
- (사업내용)
  - Mombasa–Mtwapa 구간(Lot 1, 연장 13.5km)은 왕복 4차로 분리형 도로로 확장되며, 이에 더해 서비스도로, 입체교차로 6개소, 보행자 육교 6개소, 비동력 교통시설(NMT facilities), 침수 대응을 위한 12km 규모의 간선 배수 시설이 함께 구축될 예정임.
  - 추가 사업 내용으로는 보행로·보도, 서비스 차로, 고가도로 및 교량, 가로등, 그리고 회랑 구간 내 토착 수종 식재를 포함한 조경이 포함됨.
  - 본 사업의 보다 광범위한 목표는 해당 연안 연결축을 동아프리카 연안 회랑 및 케냐–탄자니아 고속도로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케냐 남부 국경(Lunga Lunga)에서 Mombasa, Mtwapa, Malindi를 거쳐 탄자니아 연안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이고 개선된 도로 연결성을 확보함으로써 무역, 관광,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음.
  - 본 프로젝트는 Mombasa, Nyali, Mtwapa, Bamburi 등 연안 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되며(예: Mombasa↔Mtwapa 이동 시간 약 10분 수준), 물류 및 관광객 수송 효율성 제고와 함께 연안 경제권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 (추진현황)

18) <https://www.mygov.go.ke/sh75b-mombasa-mtwapa-road-dualling-project-makes-steady-progress>

- 2025년 6월: 연장 13.5km의 Mombasa–Mtwapa 구간은 토지 수용 및 보상 지연으로 인한 초기 차질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기준 공정률 90%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됨.
- 2025년 11월: 정부는 사업 영향 주민(PAPs)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가 토지 보상 기관에 KES 31억 6천만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통해 토지 수용과 연계된 공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음.(2025년 11월 기준 260명 이상의 PAPs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 지급은 계속 진행 중.)
- 2023년 초: 광역 연안 회랑 구간(Mtwapa–Kilifi / Mtwapa–Malindi–Lungalunga) 연안 회랑의 광범위한 구간에 대한 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예를 들어 Lot 2의 일부인 Mtwapa–Kwa Kadzengo–Kilifi 구간은 2023년 초 기준 약 10%의 공정률이 보고된 바 있음. 해당 구간에서는 이미 현장 동원 및 일부 공사가 수행된 상태였음.
- 2022년: 본 도로는 케냐 연안 도시들을 탄자니아와 연결하는 광역 국경 간 고속도로의 Lot 1에 해당하며, Malindi → Lungalunga → Bagamoyo/Tanga로 이어지는 동아프리카 연안 회랑 프로젝트의 일부. 케냐 구간 공사는 2022년에 착수되었으며, 본 회랑은 재원 조달, 토지 수용, 탄자니아 측 공사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2028년까지 '대체로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주요상황)

- Mombasa - Mtwapa 2차로 확장 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안 회랑의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고, 관광 및 도시 혼잡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있음.
- 정부는 토지 보상 및 이주 지원 문제를 사업 영향 주민(PAPs)에 대한 자금 지급을 통해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요 병목 구간이 해소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되었음.
- 본 사업은 케냐 - 탄자니아를 잇는 광역 연안 회랑의 일부로, 무역, 관광, 국경 간 연계 등 전체 혜택은 케냐 및 탄자니아 구간의 협력적 진행 여부에 달려 있음.
- 개선된 도로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크며, 이동성 향상, 이동 시간 단축, 연안 관광 활성화, 물류 효율 개선, 연안 도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배수 시설, 보행로, 환경 조림(토착 수종 식재) 등이 포함되어 보다 종합적·지속가능한 인프라 접근을 보여줌.

## ② Kericho-Kisii-Migori-Isebania (Kisabenia) Road<sup>19)</sup>

### < 사업 개요 >

- (발주처) 케냐 국도청(KeNHA) – 인프라 국(State Department for Infrastructure)과 협력, 국경 간 구간은 지역 파트너와 공동 추진.
- (도급사) 전체 회랑을 수행하는 단일 공개 시공사 없음. 과거 공사는 구간별(Lot)로 서로 다른 시공사에 배정되었음.  
최근 국가 차원의 착공식 및 KeNHA 현장 점검은 KeNHA가 조달 및 시행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나, 회랑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통합 시공사 명단은 공개되지 않음.
- (사업비) 구간별로 사업비가 상이하며 전체 회랑에 대한 단일통합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  
Isebania–Kisii–Ahero 축 AfDB 지원 복구 사업은 AfDB 차관 2억 2,813만 달러로 조달되었으며, 정부 및 EU 공동 재원을 포함한 총 패키지 규모 약 2억 8,030만 달러로 집행되었음. 이는 Kisii–Isebania/Ahero 구간의 유용한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음.
- (펀딩) 혼합 구조의 재원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Isebania–Kisii–Ahero 구간 주요 재원/ 케냐 정부 공동 재원/ EU/아프리카-EU 신탁기금(Africa-EU Trust Fund) 기여, 진행 중인 보상 및 마무리 공사 예산 배정 등이 포함)  
2025년 신규 국가 차로 확장/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르면 주요 회랑에 대해 정부 및 PPP 우선 투자가 예상되나, Kericho → Isebania 구간의 구체적 재원 조달자는 Lot별로 상이
- (사업내용)
  - 역사적 Isebania–Kisii–Ahero 회랑(Isebania → Migori → Kisii → Ahero 연결망 일부)은 약 172km에 달하며(AfDB 자료 기준 Isebania–Ahero 축), Kericho–Kisii 연결 구간은 리프트밸리(Rift Valley) 고지대와 Kisii/Migori 저지대, 국경 지점 Isebania를 연결함.
  - 포장 보수, 필요 시 도로 확장/2차로화, 도시 혼잡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Bypasses), 배수 및 홍수 방지, 보행로·교량, 도로 안전 시설이 포함됨.
  - 환경·사회적 보호 조치(ESIA/RAP)는 Isebania–Kisii–Ahero 구간 AfDB 재원으로 준비됨.
- (추진현황)
  - 2016~2019년: AfDB는 Isebania–Kisii–Ahero 회랑 복구를 위한 2억 2,813만 달러 차관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달 절차 및 환경·사회 영향 평가(ESIA)/보상계획 (RAP) 연구를 완료하고, 단계별 공사가 해당 프로그램 하에 착수되었음.
  - 2020년대: 공사는 주기적 시공사 배치, 보상금 지급, Lot별 완료 목표 설정과 함께 지속되었으며, 정부 보고서 및 OpenBudget 기록에는 Isebania–Mukuyu–Kisii–Ahero Lot 공사에 대한 반복적 예산 배정이 포함되어 있음.
  - 2021~2025년: 추가 재원 집행 및 보상금 지급이 보고되었으며(예: 언론 보도상 초기 사업비 조정 포함), KeNHA와 대통령실은 2025년 일부 구간을 현장 점검하고 재착공하여

19) [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Environmental-and-Social-Assessments/Kenya\\_-\\_Isebania-Kisi-Ahero\\_road\\_rehabilitation\\_project\\_%E2%80%83\\_ESIAS\\_%E2%80%83\\_RAP\\_Summary\\_%E2%80%83\\_07\\_2015.pdf](https://www.afdb.org/fileadmin/uploads/afdb/Documents/Environmental-and-Social-Assessments/Kenya_-_Isebania-Kisi-Ahero_road_rehabilitation_project_%E2%80%83_ESIAS_%E2%80%83_RAP_Summary_%E2%80%83_07_2015.pdf)

도로 재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하였음.

- 2025년 하반기: 본 회랑은 국가 10년 도로 2차로화/포장 계획(State of the Nation / KeNHA 계획사업 목록)에 언급되었으며, 이는 정치적 우선순위 재확인 및 향후 조달·재원 배정 대상임을 시사함.

○ (주요상황)

- AfDB 주요 재원(Isebania - Kisii - Aher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2억 2,813만 달러 차관은 Isebania - Kisii - Ahero 축 복구사업의 주요 외부 재원이자, Kisii - Migori 국경 연계 공사의 핵심 기반이 되었음.
- 단계별 공사 및 구간별 재원 배정: 회랑은 Lot 단위로 점진적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고되는 사업비가 구간마다 상이하고, 전체 구간에 대한 단일·통합 계약 금액은 존재하지 않음. 초기 추정 비용은 시간 경과에 따라 조정.
- 토지 보상 및 사회적 보호 조치 문제: 공개 보고에 따르면, 자연과 비용 수정은 주로 보상금 지급과 RAP(Resettlement Action Plan) 시행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본 회랑의 일반적 도전과제이다.임.
- 2025년 정치적 우선순위 재확인: KeNHA와 대통령실은 2025년 하반기 도로 사업 계획에서 주요 회랑(특히 Kisii - Isebania 연계 구간)을 공식 재지정하였으며, 이로 국가적 도로 확장/2차선화 계획에서 추가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높아짐.

### ③ 400 kV Lessos-Loosuk Transmission Line Project<sup>20)</sup>

#### < 사업 개요 >

- (발주처) 케냐 전력 송전회사(Kenya Electricity Transmission Company Limited, KETRACO)
- (도급사) Africa50 컨소시엄(범아프리카 인프라 투자 플랫폼)과 인도 Power Grid Corporation(글로벌 주요 송전 유틸리티) 공동 수행.
- (사업비) 400 kV Lessos-Loosuk 및 220 kV Kibos-Kakamega-Musaga 송전선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3억 1,100만 달러(KES 404억)이며, 400 kV Lessos-Loosuk 구간도 이 총액에 포함.
- (펀딩) 100% 민간 자본으로 Africa50-PowerGrid 컨소시엄이 PPP 방식으로 투자 수행, 초기에는 직접적인 공적 재원 투입 없음.
- (사업내용)
  - 400 kV Lessos-Loosuk 송전선은 약 180km 고압 송전 회랑으로, Nandi, Elgeyo Marakwet, Baringo, Samburu 카운티를 통과하며, Lessos 400/220 kV 변전소와 Loosuk 400 kV 스위치 스테이션을 연결함.
  - 본 송전선은 Lake Turkana Wind Power Plant에서 생산되는 최대 300 MW 풍력 전력의 안정적 송전을 위한 중요 대체 경로를 제공하며, Baringo-Silali 지열단지에서 계획 중인 지열 전력의 안정적 계통 송출도 지원함.
  - 송전선 통합 및 지역 전력망 신뢰도와 용량 강화를 위한 관련 변전소 인프라도 포함됨.
  - 또한, 동일 계약 하의 220 kV Kibos-Kakamega-Musaga 송전선과 연계되어, 서부 케냐(Kisumu, Vihiga, Kakamega)로의 고압 전력 연결성을 확대함.
- (추진현황)
  - 2025년 12월 15일: KETRACO는 Africa50 및 PowerGrid와 3억 1,100만 달러(KES 404억) 규모 PPP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 범위는 400 kV Lessos-Loosuk 및 220 kV 송전선의 설계, 재원 조달,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를 포함하며, 케냐 송전망 최초의 주요 PPP 사업으로 기록됨.
  - 본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 제안(PIP)으로 개발되었으며, PPP법(2021) 하에서 승인되었음. 또한 PPP위원회, 케냐 법무장관, KETRACO 이사회, 에너지·석유규제청(Energy and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 EPRA)의 승인 절차를 완료하였음.
  - 계약 체결 이전인 2025년 말, 공개 협의 포럼이 개최되어, PPP 체계 하 계획된 송전망 업그레이드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 ○ (주요상황)

- 송전망 최초 PPP 사례: 본 사업은 케냐에서 추진된 최초 주요 송전망 PPP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재정 제약과 높은 공공부채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통한 전력망 확장 전환을 보여줌.

20) <https://www.africa50.com/media/news/article/ketraco-signs-landmark-public-private-partnership-with-africa50-and-powergrid-corporation-of-india-to-deliver-usd311-million-power-transmission-project/>

- 400 kV Lessos - Loosuk 구간은 기존 송전 회랑(예: Loiyangalani - Suswa)에 대한 중요한 대체 경로를 제공하며, 풍력 및 지열 등 재생 에너지 통합을 지원함.
- 지역 전력망 영향: 향상된 전력 송전 및 신뢰성은 정전, 기술적 손실, 부하 차단 감소에 기여하며, 특히 북부, 서부, 리프트밸리(Rift) 지역에 혜택을 줌.
- 민간 자본 기반 모델: 설계, 시공, 운영·유지관리(D, B, O&M) 의무를 민간 파트너에게 부여함으로써, 공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케냐의 광범위한 인프라 재원 조달 전략과 연계됨.

##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해당사항 없음